



대전주보

2020년 사목지표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
-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 -

발행 유흥식(제2597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2·630·7700 팩스 042·630·7755
주소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여사울 성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여사울길 22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2020년 10월 18일(가해)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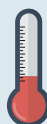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12.1~2020.11.28



한끼100원나눔운동 2020년 사랑의 온도현황 43.2℃

2020년 총 모금액 432,325,351원

9.25~10.8 모금액 본당 28,778,660원 / 단체 및 개인 10,226,410원



파견되어 선포하는 사람



이재선 세례자요한
도마동 보좌

전교 주일입니다. 선교라고도 하고, 복음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의 선교사명은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세상 끝 날까지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이 선교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선교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느님을 받들어 부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하느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느님에 대해 들으려면 누군가 하느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느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파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견된 누군가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선교 과정에 있어서 파견되어 선포하는 사람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음이라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원짜리 불펜이라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줘서 받아온 불펜과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건네준 불펜은, 같은 100원짜리 불펜이지만 나에게 있어 각각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복음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가늠해 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도 예비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과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말로써 신앙을 권유하거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선포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근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에 소홀해지는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이든 그렇지 못한 모습이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모습 그 자체가 각자의 복음선포이며, 교회의 선교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883)
유판식 토마스



넌찍하고 큰 방에서 지냅니다. 방 3개, 거실 1개, 공부할 수 있는 방 1개, 주방 1개 그리고 화장실 3개. 이 넓은 곳에서 혼자 지냅니다. 부자처럼 삽니다. 그런데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제관이라고 부르는 이곳을 거처로 지냅니다.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덕이 되는 공간입니다. 버리거나 나누기도 어려운 공간, 공적으로 사들인 것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보이지 않은 것처럼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편한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 속에서 지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기구들이 대부분인 공간. 리드선으로 연결된 전열 콘센트 30개를 거뜬히 채우고 다른 리드선을 찾습니다. 참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게 지냅니다.

서구인들은 1인당 30명 이상의 석유 하인들을 부리며 산다고 합니다. 화석연료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구조가 공고하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20명 이상의 석유 하인을 부리며 지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고 자고 먹고 타고 싸고 가꾸고 심지어 공부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태양의 작용과 지구의 순환 과정 속에서 화석연료가 된 것은 살아있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의 삶과 피일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지속하는 순환입니다. 산다는 것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다는 행위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기존의 살았던 방법을 멈춰라!”

누군가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자고. 그런데 천천히 가도 되는 걸까? 기후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임상교 대건안드레아 신부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마주 앉는다는 것
서로 말하며
주고받는 것

믿음으로
마주앉아 나누는 것

사랑, 화해, 평화
내 마음부터
해야 하는 것.





사진 : 대전가톨릭신문사

여사울 성지(3)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의 아들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1765년 여사울에서 태어났다. 1801년 부친이 순교하자 그 모범을 따르겠다는 의지로 그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져 갔다. 이후 모든 재물을 버리고 경상도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1815년 3월, 을해박해로 안동 관아를 거쳐 대구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관원들이 놀랄 정도로 항구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오랫동안 옥중생활을 하고 1816년 12월 19일, 당시 나이 51세로 대구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여사울 출신으로 대표적인 순교성인은 홍병주 베드로와 홍영주 바오로 형제이다. 이들의 조부는 복자 홍낙민 루카로 1786년 가성직제도 안에서 사제로 활동하였고, 1791년 신해박해 때, 정조 임금의 권유로 배교하였지만,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자 보례와 고해성사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1795년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실을 알게 되고 체포하려다 놓치게 되자 을묘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홍낙민 루카도 연루되어 두 번째 배교를 했다.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로 다시 체포되었을 때, 그는 “저는 천주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이를 멀리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배교를 철회하고 서소문밖 형장에서 참수로 순교하였다. 아버지의 순교 후 아들 홍기영 루카는 가족을 데리고 충청도 내포의 여사울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여사울에서 성장한 성 홍병주 베드로와 성 홍영주 바오로 형제는 회장으로 임명되어 열심히 신앙생활로 교우들을 꾸준히 보살피어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그들의 일상엔 남을 가르치는 것과 격려와 병자 간호와 그 밖의 자선사업에 골고루 바쳐졌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정성과 헌신에 감격하여 여러 차례 아주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선교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일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순교자의 자손답게 혹독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한 두 형제는 형조로 이송되어 그곳에서도 배교의 유혹과 형벌을 받았다. 어떠한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840년 1월 31일 성 홍병주 베드로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후 그 이튿날 동생 성 홍영주 바오로가 당고개에서 순교하였다. 당시 조선 법률에 형제나 부자를 함께 처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인 홍 바오로의 사형 집행일을 하루 늦추었던 것이다. 이들 형제는 1984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다.



가을철 산행 부상 주의

어느덧 가을, 온 산을 물들인 울긋불긋 단풍으로 두 눈이 즐거운 계절이 왔다. 산행 계획을 세우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준비 없이 산에 오르다가 뜻밖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산행 후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흔히 알이 배졌다고 얘기하는 지연성근육통이다. 근육통은 근육을 갑자기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허벅지, 종아리, 허리 근육 등에 주로 생긴다. 통증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7일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근육통 외에 흔히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발목을 빼는 발목 염좌이다. 부상 초기에는 보조기를 이용해 일정 기간 발목을 고정시켜 부종과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운동과 근육강화운동을 통해 늘어난 인대를 복구시켜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대 손상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반복적으로 발목을 빼게 되고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발목을 뺀 뒤 여러 주가 지나도 원래 상

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인대가 파열됐거나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산행 도중 많이 입는 부상은 무릎관절과 허리 손상이 있다. 특히 평소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평지에서 걷는 보폭보다 좁게 걷는 게 좋으며, 땅을 밟을 때는 발끝이나 발뒤꿈치를 사용하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안정감 있게 디뎌야 한다. 등산용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으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줘야 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에는 발목 돌리거나 밴드를 이용한 발목 근력 강화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걷기 운동 등으로 하체근육의 힘을 길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재중 교수

우울함 속에 피어난 밝은 미소!!

정명숙 요안나 (대동본당)

지난 9월 23일 수요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동 성당의 주교님 사목방문일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단절되고 상실된 삶의 여정으로 우울함과 어두움의 기로에서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성당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희망이 요즘 삶의 원동력이 된 듯합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사목방문을 하실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지만, 오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순을 바라보며 사는 제가 왜 아침부터 설렘을 까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미건조하게 생활하다가 주교님의 방문 소식에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50년대 초반 주교님 본당 방문은 큰 환희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엔 주교님은 하느님이라 생각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조퇴하고 성당으로 달려와 주교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인사하며 행복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환한 미소로 주교님과 교구청 국장신부님 세 분이 들어오시자, 제 마음의 우울함은 순간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풍선 같은 느낌! 노년에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국장신부님과 부서별 사목위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체 회관에 모여 각 부서별 국장신부님들의 방문 소감 말씀을 듣고 주교님과 질의응답 시간에 모두 화기애애한 표정들!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시종일관 주교님의 밝은 미소는 행복 그 자체의 바이러스였습니다.

무언가 주교님께 묻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듯한 몇 분들의 자연스러운 용기 또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 후에는 마침 그 유명한 비오 신부님 축일이라 주교님께서 준비해 오신 비오 신부님 오상의 피 묻은 상에 입맞춤하였고, 그 은총의 영광된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코너이며,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수).

원고 : 수필, 원고지 5장 및 A4 용지 20줄 이내 / 원고 초과 및 편집에 따라 일부 수정, 지면상 “시”는 받지 않음.

문의 : (042)630-7751 교구 홍보국 / **보내실 곳 :** 대전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대전교구청 홍보국, tjubo@hanmail.net

알립니다

황선영(라우렌시오) 사제 모친 선종

황선영(라우렌시오) 사제의 모친 여순례(수산나, 향년 96세)님께서 2020년 10월 4일(주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10월 6일(화) 봉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알림

교구 법원 공시

- 아래 공시되는 분은 혼인과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므로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이선아(1979년생), 신원휴(1967년생)
- 담당판사 : 박지목 신부
- 때 : 2020.10.30(금)까지
- 문의 : (042)226-7761 교구법원



전담사목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 (연인/예비부부)

- 때 : 10.24(토) 13:00~17:00
- 곳 : 하품센터(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연인/예비부부)
- 주제 :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 내용 : 성과 연애, 사랑의 의미, 부부의 성, 생명과 사랑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카나홀인강좌

- 때 : 11.7(토), 8(주일) 12:30~18:3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진리관
- 수강료 : 1인 25,000원
- 대상 : 혼인을 앞둔 미혼 남, 여
- 문의 :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catholic.or.kr>

성모신심미사

- 때 · 곳 : 매주 토 10:30,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성체강복과 함께하는 기도회

- 때 · 곳 : 10.22(목) 19:30, 새얼센터
- 강사 : 성령쇄신봉사회 말씀봉사자
- 내용 : 미사, 말씀묵상, 성체강복 등
- 선착순 60명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 성령 기도회

- 때 · 곳 : 매주 화 20:00,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 마스크 착용 필수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아 선교단
- # 아자리아 선교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azariah_1985) 참조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느루 근로장애인 모집

-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로 출 · 퇴근이 가능해야 함
- 문의 : (042)637-2257 느루 보호작업장

대전성모병원 저소득층 사시환자 무료수술 지원

- 때 : 12.31(목)
- 곳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안과
- 대상 : 저소득층
- 지원 : 사시 수술비, 입원 치료비 전액 지원
- 문의 : (042)220-9590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문의 : (042)285-1234
- 읍내동 현대아파트 옆 새마을 금고 2층

2021학년도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 접수 : 11.20(금) 17:00까지 마감
- 문의 : (044)861-7230
- 홈페이지 과정별 모집 요강 확인 필요
- www.dccatholic.ac.kr > 평생교육원
- 제출서류 다룬 후 작성 및 발송

생태적건기 심화과정

- 때 : 10.31(토) 14:00~11.1(주일) 14:00
- 곳 : 성연농장(대전 유성구)
- 대상 : 누구나
- 일정 : 바르게 걷기, 몸 동작 치료, 심리영성 작업, 주일미사
- 참가비 : 7만원 / 접수마감 : 10.21(수)
- 접수/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주최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문의 :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상 센터

- 프로그램 : 전례초조각, 캘리그래피, 가곡/성가, 일일피정(영화/말씀)/성경공부
- 전례초전시회 10.14(수)~10.20(화)
 - 곳 : 밀레마니문화영상센터 2층
 - 10.14(수) 13:00~18:00
 - 10.15(목)~19(월) 10:00~18:00
 - 10.20(화) 10:00~14:00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1 전기)

-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석사과정 / 입학전형 : 11.30(월) 14:00
- 원서접수 : 11.2(월)~13(금) 17:00
- 문의 : (02)2258-7076(대학원교학팀), (02)2258-7107(친교실)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셀)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11.7(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오기선 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 : 10.19(월) 15:00
- 곳 :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수도회 및 피정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 공모

-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2.14(월)까지
- 접수 :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i@cbck.kr)
-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예수고난회 성소모임

- 때 : 11.7(토) 18:00~8(주일) 11:00
- 곳 : 서울 돈암동 수도원
- 문의 : 010-6804-4904

베타니아 성물센터 목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국내외 성물 T. (042)226-898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영(한림대)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대전성모안과 원장: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유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솔믹우드산림산업(주) "산주님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리경영)" 대표 박성현(토마스) T. (041)751-8833	이안과병원 63주년 기념 전문분야별 6인 진료 T. (042)220-5500, 220-5701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원장 : 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영교정 이바르게가 함께합니다(1996개원)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맑은눈 안과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백내장·라식·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크마을 사거리	40년 전통 <필보요소> ▶ 정하상 효소피정 ▶ 기혈적단식 ▶ 해독요법 ▶ 면역력증강 ▶ 소화효소 ▶ 미 & 중국 수출 ▶ 지리산 산청발효 www.palbo.co.kr T. 1600-0830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광고 모집 (042)257-0190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신 구약 성경완독피정(8박9일)

- 때 : 11.6(금)~14(토) / 11.27(금)~12.5(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성주 평화계곡피정의집 11월 향심기도피정

- 1박 2일 : 10.31~11.1, 11.7~8(기초)
- 2박 3일 : 11.13~15(기초), 11.27~29(심화)
- 대상 :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10명 선착순)
- 문의 : 예수성심시녀회 010-3422-7587

우리성서모임 신입생 모집(28기/화요일)

- 내용 : 구약, 신약 전과정 길잡이 강의 (3년과정)
- 곳 : 대전 성모여고, 성모초교 교내 교육센터
- 방법 : 당분간 대면 / 비대면(영상) / 풍당풍당 강의로 진행
- 개강 : 2021.1.5 겨울특강으로 개강
- 문의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010-7236-462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념

픽셀블럭 출시!!

출시기념 할인

→12,000
₩10,000
10월 한달간



구매문의 :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
www.agnus.or.kr / 042-626-6773
QR코드 스캔시 구매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위 제품은 국내 브랜드 (주) 옥스포드와 함께 제작하였으며,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코로나19와 나의 신앙생활 이야기 공모전

기간 9월 28일(월)~11월 30일(월)

대상 대전교구 모든 신자 및 본당(초등학생부터 어르신 신자)

부문 개인 : 신앙생활 수기(개인별 1편) / 본당 : 신앙생활 동영상(본당별 1편)

주제 개인 : 코로나19와 나의 신앙생활 이야기 / 본당 : 코로나19와 우리 본당 신앙생활 이야기

접수 이메일 : tjksamok@hanmail.net
우편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86 대전교구 사목기획국 공모전 담당자 앞 / 마감일 소인까지유효

접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 /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출품작 제목

수기 : A4 3매 또는 원고지 30매 / 동영상 : 7분 분량의 편집

발표 12월 20일(대림 제4주일) 예정 / 교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http://www.dj catholic.or.kr> 참조 및 QR코드 스캔

문의 (042)630-7721 교구 사목기획국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현주 지음 / 296쪽 / 분도출판사 / 12,000원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책은 저자가 인생 후반기 체험을 쉽게 풀어낸 수행 안내서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삶은 거창하거나 고행길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열쇠를 가진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마음 공부의 길, 일상에서 사랑을 키우고 닦는 평범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나를 찾는 나를 떠나서는 결코 진짜 나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나뿐 아니라 내가 찾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세움병원 척추, 관절 집중치료 서울아산병원 출신 황인석 대표원장, 김경현(요한)원장, 김재환(필로)원장 외 5명 협진 (042)489-8888 대전 서구 둔산남로107	이화병원 (042)579-1400 산부인과, 내과, 암케어센터, 공단검진 3D유방초음파, 영상의학과, 산후조리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남선익스프레스(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살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광고 모집 (042)257-0190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한경부 앰)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광고 모집 (042)257-0190	플랜트 치과 손위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T.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비움 심리상담센터 정부청사역 T. (042)863-9877 부부가족, 아동청소년, 우울 트라우마, 불안, 왕따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 (042)345-7700 유성구 병명동 604-1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김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 10월 20일(화) - 원로사목자와의 만남(갑동사제관 11:00)
- 10월 21일(수) - 사목방문(주교좌 대흥동 15:30)
- 10월 23일(금) - 사목방문(천안신방동 15:30)

교구장 동정
10월 19일(월)~25일(주일)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www.dj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교좌 대흥동성당 설립 100주년 기념 희년 폐막 미사



주교좌 대흥동성당(주임 박진홍 신부)은 9월 27일(주일) 본당 설립 100주년 폐막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폐막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교구장 주교 주례로 봉헌됐으며 참석 신자들은 교황의 특별 강복을 받았다. 미사 후 본당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150주년을 위한 타임캡슐 봉헌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본당은 2017년 7월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진행해 온 100주년 관련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을 선포(교황청 칙령 제1296호와 1297호) 했고 많은 신자가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한, 9차례에 걸쳐 교황의 특별 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전교구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특별한 은총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제27회 교리교사의 날



청소년사목국(국장 조수환 신부)은 10월 9일(금)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에서 '제27회 교리교사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교리교사의 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각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 중 수상자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대리 주교 주례의 미사 봉헌과 근속교사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근속상을 받는 교리교사는 5년 근속 35명과 10년 근속 18명, 15년 근속 6명, 20년 근속 1명, 25년 근속 2명이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초래한 고통과 도전이 올 한 해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에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의 빛이 온 교회의 선교 여정을 비추어 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이사 6,8)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한 늘 새로운 응답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건네시는 이 초대는 지금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빠진 교회와 인류에게 도전 과제가 됩니다.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삶을 그리고 악에서의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로의 부르심, 곧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초대는 그 자체로 나눔, 봉사, 전구 기도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담화문 중>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0년 전교 주일 담화문



전문 보기